

불공정행위 막는 ‘온라인플랫폼법’ 속도… IT업계 ‘긴장’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공약 내걸어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 막고
입점업체 권익·교섭력 강화 목표
업계, 내수 역차별 우려… ‘반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정보기술(IT) 플랫폼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앞서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 차별 금지 ▲온라인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와 상생 촉진 등 ‘온라인플랫폼법’과 관련한 공약을 내걸었다. 온라인플랫폼법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입점 업체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등 주요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모두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IT업계에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공세가 나날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 같은 법안이 오히려 내수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으며, 기업 경영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4일 IT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밀어온 온라인플랫폼법 입법에 속도가 불을 전망이다.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온라인플랫폼법 추진에 우려하는 IT업계 관계자’ 이미지.

온라인플랫폼법은 문재인 정부 말기부터 이어진 IT업계의 해묵은 쟁점 법안이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처음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가 꾸준히 입법을 촉구해왔다.

윤석열 정부는 자율규제기구를 설치하는 등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해 온라인플랫폼법을 무산시켰으나,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상황은 반전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고, 소상공인과 입점업체의

권익 및 교섭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상생 기반의 디지털 생태계 조성, 소비자 보호, 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도 함께 추진한다.

제시한 주요 정책 과제는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및 영세 소상공인 대상 우대 수수료 제도와 ▲사회적 대화 기반의 합의 모델 구축, 광고 규제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 병행 ▲‘플랫폼 공정화법’의 신속처리 안건 추진 등이다.

법무법인 광장 측은 “온라인 플랫폼 제도 개선을 위해 ‘온라인플랫폼중개거

래공정화법안’ 제정을 통한 거래조건 공개, 계약서 교부, 불공정 행위 금지, 분쟁 조정 등의 명시를 추진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감시·제재체계를 강화하면서 을지로위원회를 통한 민관협력형 상생기구 운영 등의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IT업계는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등 국내 플랫폼을 겨냥한 ‘내수 역차별’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모두 자생 플랫폼으로서 해외 시장이 아닌 국내 시장을 겨냥한 사업을 영위하는 상황 속에서 규제는 소극적인 사업 추진을 부르고 결국 경쟁력 약화라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IT업계 관계자 A씨는 “해외 빅테크 플랫폼은 사실상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국내 기업만 규제를 받게 되면 플랫폼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현재 법인세와 관련해서도 해외 기업을 제재로 단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관련 법안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까지 공정하게 규제할 수 있으리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은 “유럽은 자국 플랫폼의 경쟁력이 없으

니 보호하겠다고 (규제를) 시작한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우리 기업을 때려잡아서 중국에 시장을 넘겨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입점업체 보호라는 명분 아래 기업의 자율적인 가격정책이나 서비스 설계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주장도 있다.

IT업계 관계자 B씨는 “단체교섭권과 감시 통제로 인해 플랫폼 기업 고유의 경영권이 침해되고, 의사결정 지연으로 인한 비용 증가 및 경쟁력 약화 문제도 고려되어야 하지만,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우려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적극적으로 온라인플랫폼법 추진을 촉구해온 시민단체에서는 기대가 크다. 그러면서 온라인플랫폼법은 수수료를 내지 않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독점 기업의 일방적 구조를 바꾸기 위함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홍민 한국방송통신판매사업자협회장은 “쿠팡을 비롯한 소수의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압도적인 시장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21대 대선에서 말뿐인 민생이 아니라 실제 자영업자들의 삶을 바꾸는 진정한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LG U+, 리캐치에 차세대 인증솔루션 공급

비즈니스캔버스의 고객관리 솔루션에
양자내성암호 솔루션 ‘알파키’ 도입
계정·접근통제 관리 강화 기대

LG유플러스는 4일 기업대상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B2B SaaS) 솔루션 기업 비즈니스캔버스의 고객관리 솔루션 ‘리캐치’에 자사의 양자내성암호(PQC) 기반 인증 솔루션 ‘알파키’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캔버스는 클라우드 기반 CRM 솔루션인 ‘리캐치’를 스타트업 및 대기업 등 300여 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최근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준비하면서 ‘계정 및 접근통제 관리’ 강화를 위해 알파키를 도입했다. 알파키는 양자 컴퓨팅 환경에서도 안전한 인증 체계를 제공하는 PQC 기반



사진은 LG유플러스 직원들이 알파키를 소개하고 있는 모습. /LG유플러스

솔루션이다. 보안민감도가 높은 통신·금융·IT 업계 SaaS 솔루션의 인증 체계 고도화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비즈니스캔버스는 알파키 도입을 통

해 계정관리 체계 강화는 물론, ISMS-P 인증 요건 충족과 내부 보안 수준 향상을 동시에 기대하고 있다. 향후 공공기관 및 금융권 대상 CRM 사업 진출 시 기술적 신뢰도 확보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양자내성암호 기술을 적용한 보안 시스템은 기존 암호화 방식 대비 해킹에 강하며, 기업의 정보 보호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SaaS 환경의 보안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업무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어 금융·공공기관 등에서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알파키의 적용 범위를 넓히기 위해 클라우드 보안 인증(CS AP) 획득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엔터프라이즈 보안 시장에서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seoh@

미래기술교육원, BMS 기술 미래 말한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

오는 27일, 세미나 열려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은 오는 27일 서울 여의도 FK타워 사파이어홀에서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기술의 미래를 조망하는 ‘전기차 무선 BMS 및 클라우드 BMS 시스템 구축과 연계 기술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급변하는 에너지 산업의 패러다임 속에서 국내외 전기차(EV),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팩토리, 사물인터넷(IoT) 기반 산업군 전반에 걸쳐 BMS는 이제 단순한 모니터링 도구를 넘어 전체

에너지 시스템의 두뇌 역할을 담당하는 고도화된 솔루션으로 진화하고 있다.

‘BMS 국내 1호 박사’ 충남대학교 김종훈 교수가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반 BMS 고도화를 위한 클라우드 시스템 연계 필요성 ▲클라우드 BMS 설계 과정 ▲차세대 BMS 개발을 위한 클라우드 BMS 내 연구 확장 ▲클라우드 BMS 기술 연구 사례 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세미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hjk1@

과기부 KT·LG U+ 보안점검 “현재까지 특이점 없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진행한 1차 현장 보안 점검에서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를 계기로 이뤄졌다.

과기정통부는 “KT·LG유플러스 등에 대해 긴급 현장 점검을 추진 중”이라며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아직 점검이 마무리되지 않아 ‘문제없음’ 결론을 낸 바 없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카카오, 중소기업자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보호위-KISA와 진행

카카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중소기업자 대상의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온라인 교육을 진행한다

카카오와 KISA는 2022년부터 카카오톡 파트너 및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자들의 개인정보 관리 역량 향상을 돕는 교육으로, 중소기업자가 아니더라도 개인정보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전년도 대비 질의응답비

율을 올려 참가자들의 실질적인 궁금증 해결에 중점을 뒀다. 글로벌 IT 기업 사례를 포함한 다양한 개인정보 침해사례를 기반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했으며, 실무 대응 방안을 함께 다룰 예정이다.

이날 진행하는 이번 세미나는 카카오톡 비즈니스 세미나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추후 다시보기로도 제공될 예정이다. 카카오톡 비즈니스 세미나는 비즈보드, 카카오톡 채널, 톡스토어 등 카카오톡의 다양한 비즈니스 플랫폼에 대한 정보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김서현 기자

SK AX, 코피니티X 온보딩 파트너 선정

카테나X 생태계 참여기업 총괄 지원

SK AX(옛 SK C&C)는 유럽 최대 자동차 공급망 ESG 데이터 네트워크 ‘카테나X(Catena-X)’ 운영사인 코피니티X(Cofinity-X)로부터 온보딩 서비스 사업자 자격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온보딩 서비스 사업자(OSP)는 카테나X 생태계에 참여하려는 기업들이 ESG 데이터 연계와 시스템 접속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기술·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공식 수행기관이다.

카테나X는 지멘스, BMW, 메르세데스-벤츠 등 10개 글로벌 기업들이 공동 출자해 만든 글로벌 자동차 ESG 데이터 연합체다. 제품 생애 전 주기에 걸쳐 탄소를 포함한 주요 데이터를 연결해 표준화하고,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됐다.



SK AX가 ‘카테나X’ 운영사인 ‘코피니티X’로부터 온보딩 서비스 사업자 자격을 획득했다. /SK AX

SK AX는 이번 OSP 자격 획득을 통해 카테나X 생태계에 참여하려는 기업을 총괄 지원하는 파트너로 활동하게 된다.

회사는 ▲카테나X 참여 등록 ▲탄소 데이터 정합성 확보 ▲데이터 주권·보안·개인정보 대응 가이드 제공 등 생태계 안착 전 과정을 지원하며, 글로벌 제조 기업들의 ESG 전환을 이끌게 된다.

/김현정 기자